
2014 호루라기 부는 날

- 제3회 호루라기 시상식

-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산다미아노



양심리

호루라기재단

2014 호루라기상(공익제보 부문)

- 내부비리를 제보한 안중훈 교사



○ 선정 사유

2014. 11. 24.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공익제보 부문은 사립학교 내부 비리를 공익제보한 동구마켓팅고 안중훈 교사를 선정했습니다. 심각한 회계 비리로 징역형(집행 유예)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학사 문제에 개입하고 독선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전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4. 29.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인의 회계와 인사 비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언론상)

- 뉴스타파의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



○ 선정 사유

제3회 호루라기 언론상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을 선정했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은 2014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 가운데 하나인 ‘안전 문제’, 그 중에서도 피해규모와 양상은 치명적인 반면 대중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핵발전소의 안전관리와 이를 둘러싼 ‘핵 마피아’의 실태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연속보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발굴과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심층취재와 대안 제시로 언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인권상)

-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 선정 사유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에는 2014년 가장 큰 인권 사안 중의 하나였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의병 전역한 병사로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들과 상의했고, 가족들로부터 이 상을 기꺼이 받겠다는 뜻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사실 관계를 잘못 안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등으로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익명으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알림으로써 군대 내의 인권 상황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호루라기 부는 사람’의 모범을 보였다고 판단해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특별상)

- 제보자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



○ 선정 사유

수상자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5년 겨울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즐기세포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 추적극입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인간적 고뇌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시민적 용기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호루라기를 불어주었다고 보고 2014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